

#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 올해가 청렴元年, 공렴(公廉)정신으로 철피아 척결에 전력

- '부패척결 및 대국민 신뢰회복' 위해 대대적 수술 나서 -

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TF는 철도납품 비리 등 끊임없이 제기된 이른바 '철피아' 논란을 불식시키고 모든 임직원이 각 골정려(刻骨精勵)\*함으로써 청렴한 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나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분야의 업무처리 절차 및 제도의 모순점과 조직문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4개 분야, 33개과제의 '철도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각골정려(刻骨精勵) : 뼈를 깎는 고통의 고생을 무릅쓰고 정성을 다하여 힘쓰.

이번에 발표한 개선대책의 주요핵심은 "계약제도 개선", "전관예우 차단", "납품비리 예방",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4대 항목으로서

첫째, 호남고속철도 등 입찰담합에 따른 부조리 예방을 위해 입찰한 업체들에 대한 입찰담합 징후를 계약체결 전에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관련 지침 등을 새롭게 제정하였고,

둘째, 철도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하여 철도관련 협회 등 철도기관 퇴직자로 다수 구성된 유관기관의 철도사업 독점시행 업무를 찾아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고, 위원 선정 후 20일간 운영되는 기술형(턴키·대안 등) 입찰공사 설계심의 방식을 단기간 집중합숙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심의기간 중 업체와 심의위원간 유착 및 로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도록 하였다.

셋째, 임의적인 의사결정이 납품비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철도표준규격을 확대하여 자재품질의 균일성 확보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만연한 가격 부풀리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원가용역 및 자재가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철도분야의 독과점 행태를 전면 해소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 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문제 이외에 임직원 의식개혁을 통한 인적비리 개선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청렴 조직문화 확산대책과 동시에 청렴예방활동 강화조치도 포함하였다. 먼저, "윗물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전 간부직원이 청렴연수원에 입소하여 전일 청렴교육을 받는 등 상급자부터 청렴의식을 개혁하고 임직원이 꼭 지켜야 할 세부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도식화한 "KR인 CLEAN 10"을 제정·배포하여 청렴의식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지금의 위기가 공단 존립을 위협 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상황임은 전 임직원이 절실히 인식하고, 지난 7월 발족한 특별대책팀인 "철도신뢰회복미래발전TF"를 중심으로 지난 3개월간 경영진 토론회, 워크숍, 청렴음부즈만자문 등 다양한 토론회와 고민의 결과라며 그 개선대책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위 철피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 특정학교의 편중인사를 방지하고 업체와 접점이 빈번한 직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보직·승진심사를 강화하여 인사쇄신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 이사장은 "이번에 노출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개선된 제도적 장치와 청렴 DNA가 뿌리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가장 깨끗한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종합 개선대책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각종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저명인사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발전자문단" 회의를 지난 9.30일 개최하여 종합 개선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실효성을 검증받고 보완해 이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공단 전 임직원은 청렴문화 생활화 및 의식개혁을 위해 "다산의 향기를 따라 청렴의 길을 걷는 KR"이라는 행사를 통하여 올해가 'KR 청렴 元年'임을 선포하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육림(六廉)과 청렴(淸廉), 절용(節用)의 '다산(茶山)사상'이 개인과 공단 조직문화 속에 정착되도록 다짐했다.

※ 총 4개 분야, 33개의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추진 중이며, '14.10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

### [계약제도개선]

분 야	계약제도 부조리 개선
개선과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 문제점  
• 계약관련 제 기준 개선 검토 의견 수렴 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8개 협회에서 개선필요 의견(건의) 33건 제출(8.4)

구분	계약기준	분야	검토부서
공사(13건)	공사계약특수조건(4건)	공통분야(4건)	건설본부
	공산찰적격심사기준(4건)	공통분야(2건) / 전기분야(1건) / 신호분야(1건)	계약처, 기술본부
	PQ기준(6건)	궤도분야(1건) / 전기분야(4건) / 신호분야(1건)	계약처, 기술본부
용역(20건)	설계(PQ)(15건)	기계설비분야(2건) / 전기분야(13건)	계약처, 기술본부
	감리(PQ)(2건)	노반분야(1건) / 전기분야(1건)	계약처, 기술본부
	입찰공고문(3건)	공통분야(1건) / 전기분야(2건)	계약처, 기술본부

실행과제	공사 적격심사 및 용역 PQ기준 등 개선	추진부서	계약처기술본부
------	------------------------	------	---------

• 협회 건의사항 33건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공단 계약관련 제기준의 불합리한 요소 등 개선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준 개정 추진(10월)

## 4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수상

- 안전한 철도건설, 사회적 책임 노력 등 인정받아 -



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7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4년 연속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KRCA : 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는 한국표준협회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공단이 수상한 KRCA는 이해관계자(소비자, 협력사, 임직원 등)와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통이 탁월한 기업 가운데 전문가 그룹의 평가 이외에 독자가 직접 참여해 기업의 보고서를 읽고 부여한 점수를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공단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인천국제공항 KTX 개통 등 주요 철도노선 개통으로 국민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품질개선활동, 건설단계별 안전예방점검, 안전시설물 확대 등 주요 활동에서 국제인증을 획득하며 안전한 철도건설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1, 2, 3차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문화를 구현하는 활동들은 타 기관의 귀감사례로 주목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 협력사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상생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녹색철도대학원) 추진이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너와 나의 생각의 차이가 틀림이 아닌 조직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열린 소통을 통해 더욱 더 상호 신뢰를 다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부고속철 지진감시설비 전면개량, 고속열차 안전강화

- 2015년까지 노후지진설비 개량 및 구조물에 지진설비 추가설치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경부고속철도의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취약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지진감시설비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지진설비 45개소와 추가설치가 필요한 67개소에 대해 내년까지 교체 및 추가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부고속철도 지진감시설비는 재해발생 시 열차운행 비상정지 등 빠른 대처를 통해 승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으로 현재 교량 34개소 및 터널 11개소 등에 설치됐다.

열차운행선 구조물에 설치된 지진계측센서에서 보내는 실시간 지진정보를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분석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시 관제사가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철도교통관제센터 : 운행 중인 열차를 한 곳에서 집중 감시 및 제어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센터

\*지진 규모별 열차운영방법

지진규모(리히터)	가속도값(gal)	열차운영방법	비고
1.0 ~ 3.9	0 ~ 14gal	운행 주의통제	
4.0 ~ 4.9	14 ~ 65gal	일시정차 후 90km/h 이하로 서행운전	황색경보
5.0 이상	65gal 이상	운행중지 및 전차선 단전	적색경보

본부는 총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부고속철도 지진감시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최근 강화된 '지진가속도 계속기 설치 및 운영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2호)'에 따라 67개소를 추가 설치하면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파의 방향을 다양하게 감지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지진정보를 열차운행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진감시설비 설치 : 교량 및 터널에 지진설비 2~4개소 설치

소방방재청 고시에 따른 설치기준		비고
당 초	변 경	
터널 : 2-4개소 설치 교량 : 교각 3개소, 슬래브 내부 1개소 선로주변 : 기준 없음	터널 : 2-4개소 설치 교량 : 교각 3개소, 슬래브 내부 2개소 선로주변 : 30 ~ 50km 간격으로 설치	교량 62개소 및 선로주변 5개소 추가구축

본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운행선의 지진감시정보는 철도안전운행을 위해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상청 및 소방방재청의 지진감시시스템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우리나라 전역의 재난방재시스템 운영정보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